

# Meut Laor [좋은 친구들]

10월호

더위에 익숙해지고 소나기에 익숙해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 CONTENTS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아름 쑤어 쓰다이

댄스 파티

National Caritas 방문

아띠 클래스

쿠킹 클래스

쑤쑤!

싸-앗 싸-앗

TRIP

김홍 생일파티



END POVERTY CAMPAIGN

# Octo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KCDP 김홍 생일파티	2 KCDP	3 프놈펜 나들이	4 댄스파티 까리따스 행사
5 세끄데이와 CDP 회의	6 National Caritas 방문 뚜얼슬렝 박물관	7 KCDP 첫 밤나들이	8 KCDP 실습	9 따끄마으 밤나들이 소고기집 발견	10 로즈우드	11 바탐방 도착!
12 쭘 바란 와트 포도 농장	13 번 앙트로베앙트모 호수 경치좋은 절	14 데 이 시엠립 도착!	15 앙코르 와트	16 똌레삼 호수	17 양코르 와트 프놈펜 도착!	18 장보기
19 빈곤퇴치 캠페인 회의 가드닝(나무베기)	20 YDP 회의 빈곤퇴치 캠페인 회의	21 빈곤퇴치 캠페인 (1)	22 빈곤퇴치 캠페인 회의	23 프놈펜 나들이 영화수업 밤놀이	24 밤놀이	25 웃놀이 내기
26 빈곤퇴치 캠페인 (2)	27 빈곤퇴치 캠페인 준비	28 빈곤퇴치 캠페인 준비	29 빈곤퇴치 캠페인	30 쿠킹 클래스 (김밥) 세린간사님♥	Bye, October! Hi, November! :)	



# 우 리 집 을 소 개 합 니 다





**평상**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꼽으라 하면 단연 평상일 것이다. 모기향 하나 피우고 선풍기도 돌려놓고 평상에 드러누우면 가끔 불어오는 산들바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평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낮잠자고, 놀고, 회의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일 것이다.

**거실** 평상과 대조적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적은 장소이다. ‘사람이 앉는 곳이었냐’는 질문을 받은 의자와 바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차가운 대리석, 그리고 우리의 공용 화장대가 있는 곳이다.





**나래&다솔 방** 모기가 너무 싫은 다솔,  
그리고 더위가 너무 싫은 나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이다. 들어가고 나갈 때를 빼곤 절대 걷지 않는 모기  
장과 매일 밤 고생하는 선풍기. 문이 3개나 있어 채광  
이 상당히 좋지만 열지를 않는다고 한다. 종원과 한길  
이 항상 방을 바꾸길 요구하고 있다.



**종원&한길 방** 나래와 다솔이의  
방과는 달리 항상 문을 열어 뒤편 환기가 잘 되고  
햇살을 머금은 방이다. 그러나 침대가 너무 폭신  
한 탓에 나래와 다솔이에게 방 교체를 매번 요구  
하고 있다. 창문을 항상 열어두다 보니 모기와  
함께 살고 있다. 그 덕에 매일 아침과 밤에 끊이지  
않는 따다닥,소리.



## 안 쓰는 방

우리 집에 방은 총 3개, 그래서 한 방이 남는다. 주로 약이나 책 등 공용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비가 오면 널어둔 빨래를 놔둘 데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종원이 방에 줄을 치고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 화장실

주방과 뚫려있는 이 곳은 빨래터이자 화장실이다. 앞의 공간에서는 빨래를 하고 안 쪽이 화장실이다. 캄보디아에서는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내리는 버튼도 없다. 수동 비데식이며 물을 받아 내리면 된다.

## 주방

주방에 분명히 식탁이 있지만 아무도 여기서 밥은 먹지 않는다. 식탁의 의자는 수건을 걸어 놓거나 씻으러 가기 전 옷을 놓아두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 아름 쑤어 쓰다미

When you meet a person in the morning.

## #4. 라온아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까리따스 센터의 학생인 유스들은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수료하고 나면 직업을 구해 이 곳을 떠나기 시작한다. AD, IT, CD반 학생들의 경우 그 기간이 보통 1년이기 때문에 10월로 들어서면서 이력서를 쓰고 직업을 구할 준비를 한다. Painting반 학생들도 2년의 기간이라 남는 학생들도 있고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다. “오늘은 어째 유스들이 좀 안 보인다..” 우리가 10월에 들어서서 가장 많이 한 말이다. 12월에 졸업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직업을 구하면 이 곳을 떠나기 시작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유스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아쉽다. 이제 친해지고 스스럼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 댄스 파티

10월 4일, 까리따스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다. 까리따스의 졸업생들과 현재 까리따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모여 이야기하고 밥먹고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재 까리따스를 다니는 유스들과  
까리따스를 졸업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선배 유스들이 만나는 자리이다.  
오전에는 까리따스 스텝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앞에 나와 이야기  
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었다.

오후가 되자 모두 커다란 원을 그리  
고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  
작한 게임은 3시간을 넘게 계속됐고  
게임이 끝나자 시작된 음악은 해가  
기울고 밥 때를 지나서, 9시까지  
끝이질 않았다. 노래와 함께 유스들  
과 춤을 추던 우리는 진작에 힘들어  
의자에 앉았지만 유스들은 시간가  
는 줄 모르고 하루를 즐겼다.





졸업생들과 유스들이 만나는 자리였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유스들과 놀고 졸업생  
들과도 인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같이 일어나서  
부드럽게 손을 돌리며  
뱅크뱅크,  
처음 취보는 춤에  
서툴지만  
우리도 손을 돌리며  
뱅크뱅크,  
우리는 돌고 돌고 돌았다.





가위바위보에서 저서 참가하게 된 게임이지만 하고나서 너무 재밌어 하는 나를 보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지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날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 같다.











## National Caritas 방문

10월 6일, National Caritas에 방문했다. Caritas는 전 세계적인 가톨릭 NGO으로 그 중에서 Caritas Cambodia는 사랑, 평화, 공동체, 형제애에 기반을 두고 일하고 있다.

그 중 우리가 방문한 National Caritas는 캄보디아의 까리따스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재난 관리, 소외된 지역의 의료, 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까리따스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라타나 씨를 만나 까리따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듣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깐달에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감상을 공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까리따스 직원들이 즐겨입는 주황색 까리따스 티와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양도로 사용한 다는 스카프를 선물 받을 수 있었다.



사진 출처 National Caritas

까리따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까리따스 캄보디아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YMCA가 아닌 다른 NGO에서 지내는 우리로서는 까리따스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With Caritas staffs

2015. 10. 06.

# ATTI CLASS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 ATTI CLASS

5주간의 아띠 클래스가 이어졌다.  
하지만 유스들의 낮은 참석율은 우리로 하여금 수업을 하는 것의 의미와  
수업의 향방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끔 하였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수업이 유스들의 요구와 다른걸까?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 ATTI CLASS



우리가 아띠클래스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YDP 담당자인 피룸과 탄이 아띠클래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였다.

적은 인원 수.  
이에 대해 우리는  
수업의 난이도 조절과  
수업 대상을 마을로 넓혀볼 것을  
제안받았다.



하루종일, 아니 하루를 넘게  
수업을 어떻게 할 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스들에게,  
마을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11월부터  
두 가지 레벨의 영어 수업,  
그리고 마을 아이들 수업,  
기존의 영화 수업으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 COOKING CLASS

모든 유스가 모이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0일  
금요일. 바로 쿠킹 클래스를 하는 날이다. 9월에 같이  
요리를 해볼 수 없어 아쉬워했던 유스들을 위해 이번  
엔 특별히 같이 말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맛있었던  
한국음식으로 꿈던 음식인 김밥을하기로 했다.

쿠킹 클래스 전 날 밤, 재료가 모자란 걸 알아차리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프놈펜으로 나섰다. 당연히 열었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 마트가 문을 닫아 거의 40여분을  
톡톡을 타고 헤메다 겨우 재료를 구했다.

아침부터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 맞춰 집  
에서 말아둔 김밥 30여줄과 김밥 재료를 들고 센터로  
향했다. 우리가 말아둔 김밥은 센터 스태프분들과 유스들  
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점심을 다 먹은 유스들 중 직  
접 김밥을 말아보고 싶어하는 유스들과 함께 김밥을 말  
았다. 참치 마요네즈, 깻잎, 햄, 맛살, 단무지, 김치볶음,  
계란 지단 등 다양한 속재료를 준비해서 각자 개성에 맞  
는 김밥들이 탄생했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많이 넣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꼭꼭 눌러서 그냥 말면 돼!  
너가 좋아하는 걸로 넣어서 하면 돼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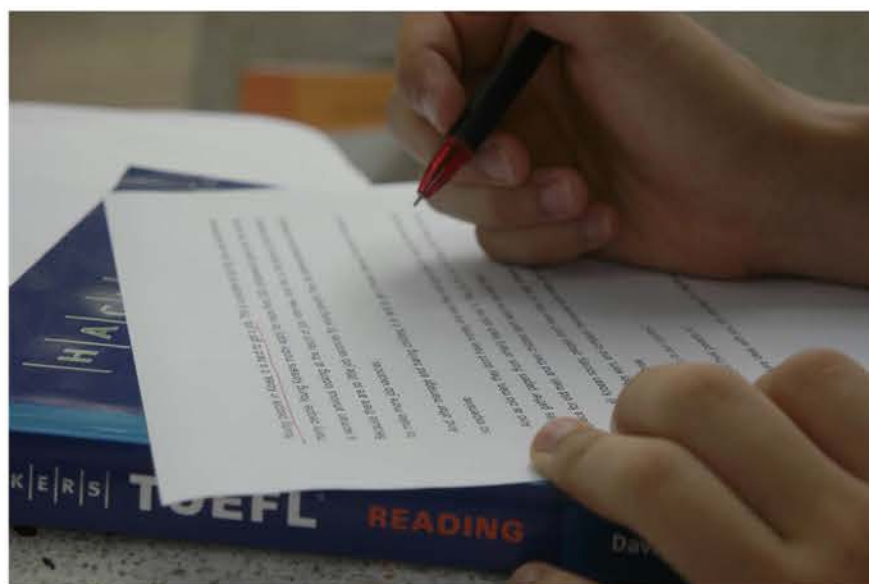
# 빈곤 퇴치 캠페인

End Poverty Campaign

## #5. 당신의 빈곤은 무엇입니까?

---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를 비롯한 라온아띠가 있는 5개국과 한국 총 6개국에서는 함께, 그리고 모두 다르게 빈곤퇴치 캠페인을 연다. 우리는 유스들과 함께 빈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유스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꾸려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총 4회에 걸쳐 유스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라온아띠 14기 캄보디아팀만의 빈곤퇴치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 곳, 캄보디아의 빈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빈곤'의 개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빈곤은 어떤 게 있을까?

## 첫 번째 만남



우리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빈곤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소  
 통의 빈곤, 저출산, 쓰레기 문제, 평화 문제, 여유의 빈곤, 세대 별 행복  
 의 빈곤.



유스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사진들이 한국의 모습이냐고 되물어보  
 며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 놀라워하기도 했고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  
 기도 했다.

## 첫 번째 만남



한국의 빈곤을 공유해준 다음, 우리는 유스들에게 유스들이 생각하는 캄보디아의 빈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

처음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는 내용에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짧은 크메르어로 한 명씩 이해를 도와주고 몇몇 유스들이 통역을 맡아주면서 점점 내용을 이해하고 캄보디아의 빈곤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었다.



크메르어로 적힌 '유스들이 생각하는 캄보디아의 빈곤'의 해석을 Sokya, Soksan 그리고 Dina에게 부탁했다. Thank you so much! :)



우리는 유스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약 4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다.

교육과 지식의 부족

34%

경제 침체

25%

저임금, 일자리 부족

23%

높은 출산율, 다자녀

18%



# 두 번째 만남



캄보디아의 빈곤에 대한 유스들의 대답을 다함께 공유하고 그 연관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캠페인의 내용을 제안하며 유스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교육과 경험의 부족을 빈곤의 대상으로 잡고 우리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고 정했다.

빈곤퇴치 캠페인은  
10월 29일 오후 3시 까리따스에서  
다양한 미술 재료를 이용한 그리기,  
그리고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화분을 만들기로 정했다.



## 두 번째 만남



유스들이 캠페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  
인의 준비도 유스들과 함께  
해나갔다.



화분을  
한 번 미리  
만들어볼까

예쁘네!  
됐네!

## 세 번째 만남

빈곤퇴치 캠페인 하루 전 날, 우리는 유스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빈곤퇴치 캠페인을 알렸다.



# 세 번째 만남



# 세 번째 만남



더운데도 같이 마을 돌아줘서 고마워!

## 네 번째 만남



10월 29일,

오후 3시 까리따스에서

빈곤퇴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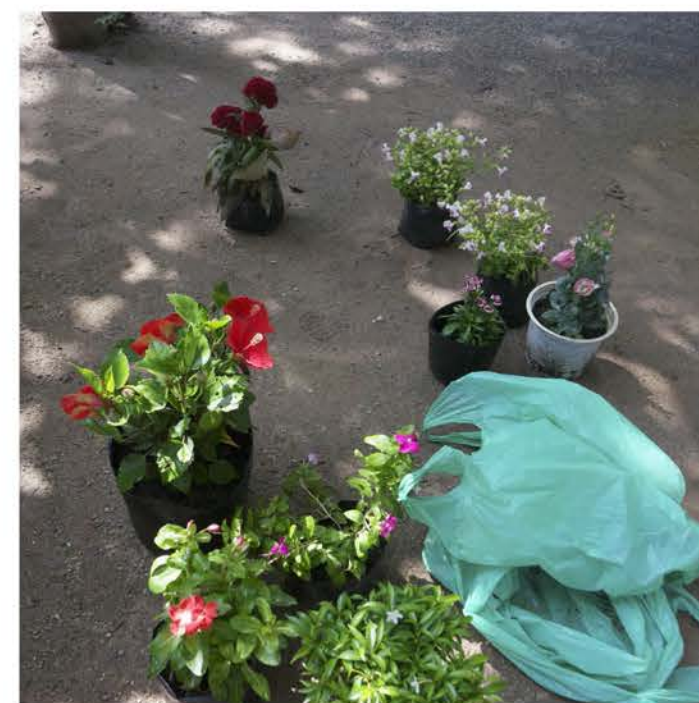


다양한 재료로 그림 그리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화분 만들기



네 번째 만남 마을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유스들도 불러 모으고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네 번째 만남 조금 이르게 시작해 마을을 돌며 아이들을 불렀고 아이들은 까리따스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 네 번째 만남



Meut Laor

국내 훈련을 받으면서 충격적일 만큼 새롭게 다가온 건 '잘산다' '못산다'는 말이었다. 나에게 너무 당연하게도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캄보디아는 못 사는 나라였지만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캄보디아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졌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와서 사는 동안에도 캄보디아가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은 한번도 든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잘 사는 나라다, 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교육, 의료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의 부족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에게는 살로 와닿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히려 캄보디아의 빈곤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캠페인은 나의 빈곤을 찾아주었다. 그건 바로 그림이었다. 어릴 적 꿈을 적는 란에는 항상 화가라고 적었지만 중학생 이후로는 그림을 그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나보다 잘 그리는 친구가 많아서, 미술 시간이 거의 자습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같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다. 캠페인 날 유스들, 아이들과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면서 어릴 적처럼 기쁘게 그림을 그리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즐겁게 '그림'이라는 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었다.

# 네 번째 만남



Meut Laor

:)



# 네 번째 만남



## 네 번째 만남



페이스 페이팅으로 얼굴에도 옷에도, 우리는 난장판이 되었다.  
아이들은 우덤의 넓다란 등에 그의 이름을 써주었다.  
‘꼬레’도 써주고 우덤이 최고라며 1도 써주고(우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의 이름도 써주었다.  
우덤은 물감이 묻으면 버리려고 입은 티셔츠가  
이렇게 소중한 티셔츠가 될 지 몰랐다.

## 네 번째 만남



아이들의 그림이 이렇게 예뻐보인 적은 처음이다. 그래도 아직은 낯설 우리를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한 번 해보는 것이더라도 아이들에게, 유스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좋을텐데.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낀다. 그저 우리에게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곳의 빈곤은 무엇일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곳에서 나의 빈곤들이 채워져가는 기분이다.

쑤쑤!

Cheer up!

## #6. 라온아띠, 필드에 나가다.

---

9월 한 달동안 깐달에 적응했으니 10월부터는 필드에 나가 농부님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2주씩 돌아가면서 YDP와 CDP일을 하기로 했는데 첫 2주엔 CDP, 다음 2주엔 YDP의 형태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달 역시 품에서 많은 일은 하지 못했다. '프쫌번 데이'라는 약 5일간의 연휴가 CDP 주에 겹쳐 필드에는 일주일정도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손을 맞춰 보면서 농부님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품’에 간 날  
 부터 이틀 간, 마을의 농부님들  
 과 까리따스 스태프분들이 모두 모  
 여 하루종일 회의를 했다.

CDP를 맡고 있는 씬낭은 회  
 의내내 우리 옆에서 아주 사소  
 한 부분까지 영어로 통역을 해주  
 었다.

주로 까리따스 스탭분이나  
핵심 농부님들께서 다른 핵심  
농부님들께 경작 방법을 설명  
해드리는 내용이었다.

핵심 농부님들께서는 다른  
농부님들께 알려드릴 때도,  
들을 때도 항상 열심이셨다.





## 세끄데이씨를 만나다

10월 5일, 인도에 가셨다가  
까리따스로 복귀하신 세끄데이  
씨를 만났다. 짧은 소개의 시간  
과 함께 CDP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  
셨다.

*Don't forget.  
You are caritas staff.*



필드에 나간 지 3번째 날,  
우리는 농부님의 밭에 가서  
밭을 일구고 long bean을 심  
을 수 있게 밭을 준비하는 것  
을 지켜보았다.



저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 한번 해봐. 힘들텐데?





생각보다 잘 하네~



그리고 다음 날, IDE에서 나온 분들과 까리따스 스텝분들이 농부님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달해주는 자리를 가졌고 우리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기존 핵심 농부님들과 새로 농사를 배우시려는 농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비료선정에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방법 하나하나까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설명도 해주셨다.

회의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long bean 농사를  
하기로 선정되신 핵심 농부  
님의 밭으로 갔다.  
그리고 IDE 관계자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새로운  
농부님들과 함께 일을 도  
왔다.







그 날, 우리는 점심녘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2~3시간을 밭에 있었다.  
막내도 동갑내기 셋도 지칠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농부님들과 IDE 스태프분들은 지친 기색 하나없이 열심히 배우셨다.



# 싸-앗 싸-앗

pretty, beautiful

## #8. 라온아띠, 물들이고 맘돌다 물들다.

---

같이 더불어 산 지 두 달이 지났다. 진하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른 네 가지 물감이 한 팔레트에 떨어져 서로 물들이고 물들고, 가끔은 물들지 못해 맘돌다가도 다시 물들어버린다. 이마에 내 천자를 그리기도 하고 밤이 늦도록 게임을 하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유쾌해지기도 우울하기도 즐겁기도 하며 우리는 9월보다 더 알록달록하게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다.

---

# T R I P

From Battam Bang  
To Siem Reap

---



프놈펜에서 밴을 타고 바탐방으로 가는 길.  
창밖의 비슷한 풍경만 7시간 여를 보며 열심히 달려갔다.





피룸의 집에서 첫 저녁식사.

첫 목적지는 바탐방.  
이 곳은 까리따스 스태프인 피룸의 고향이다.  
캄보디아에선 프쫌번 데이라는 긴 연휴를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추석처럼 고향에 내려간다.  
우리는 바탐방에 내려가는 피룸의 초대를 받아  
피룸의 가족과 함께 연휴를 즐겼다.



피룸 집 근처의 라이스 필드  
드넓은 평야와 지평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늘이 장관이었다.



피룸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아침을 먹고

우리는 다같이  
바란 와트로 향했다.



향을 들고 기도도 드려보고  
와트에서 내려오는 길에 각자 하나씩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빨간 실도 손목에 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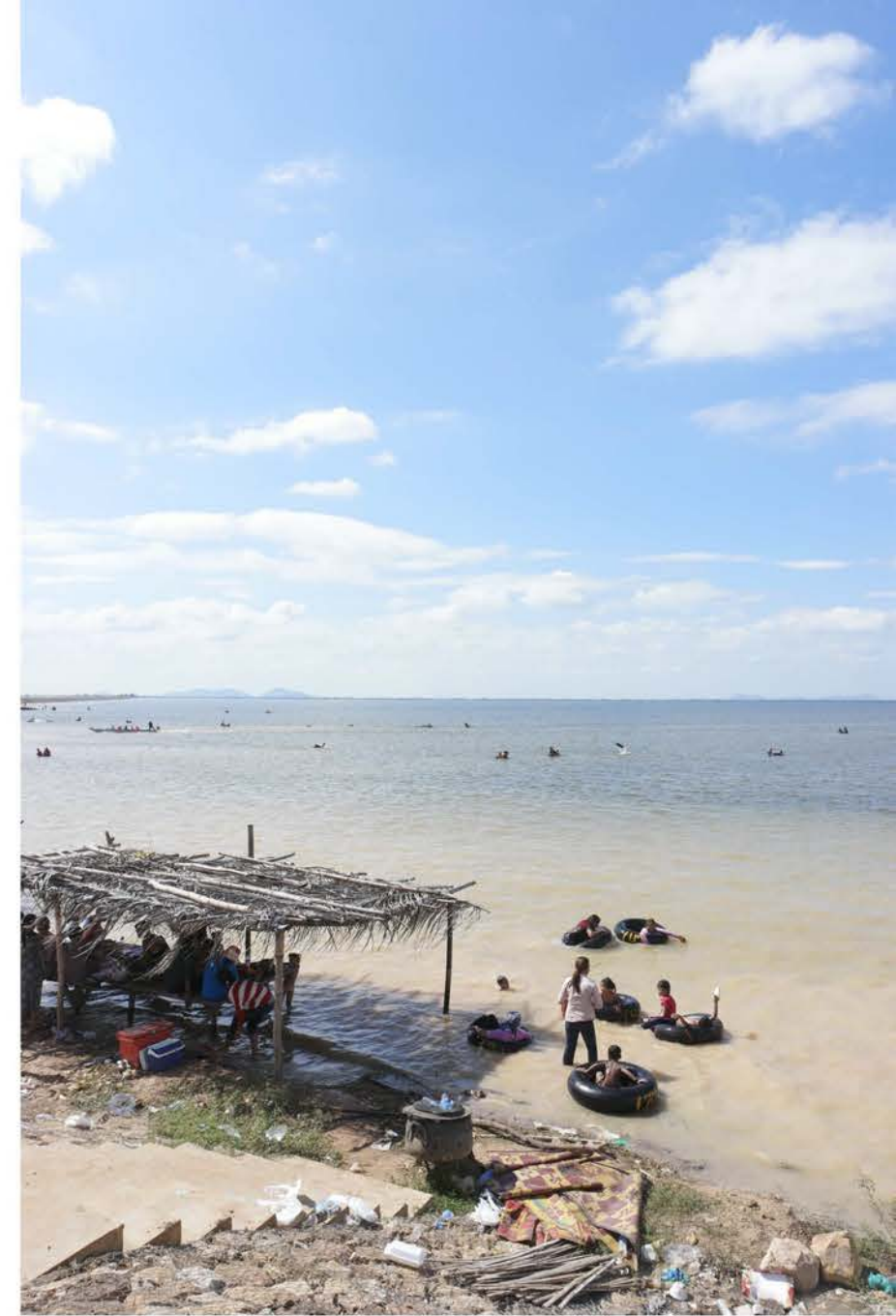


와트에서 내려와 우리는 포도농장을 갔다.  
캄보디아에서는 포도가 비싼 편인데  
바탐방에서만 포도가 생산된다고 한다.  
(하지 말란 것만 골라 하는 우덤.jpg)

다음 날,  
우리는 바탐방의 인공호수를 보러 갔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통통한 살점의  
커다란 생선구이와 쫄깃한 통닭의 맛  
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식후 돈을 건 게임은 시간가는 줄 모르게 했다.





우리는 새로운 절에 내려  
산으로 올라갔다.

물이 깨끗하지 않아  
해수욕은 뒤로 하고  
우리는 집으로 향하는 줄 알았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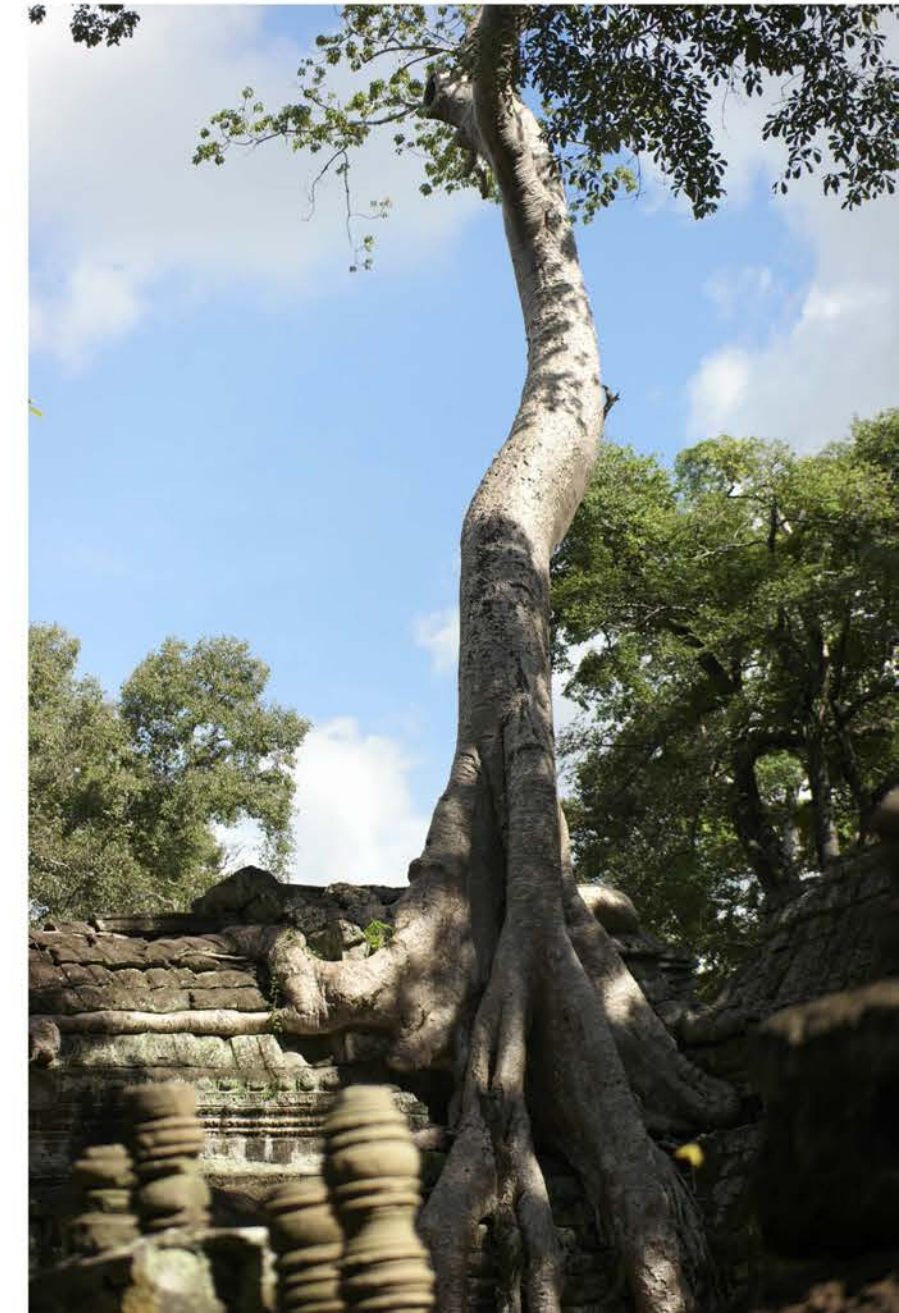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바탐방에서 2시간여를 달려  
시엠립에 도착했다.



# Ankor W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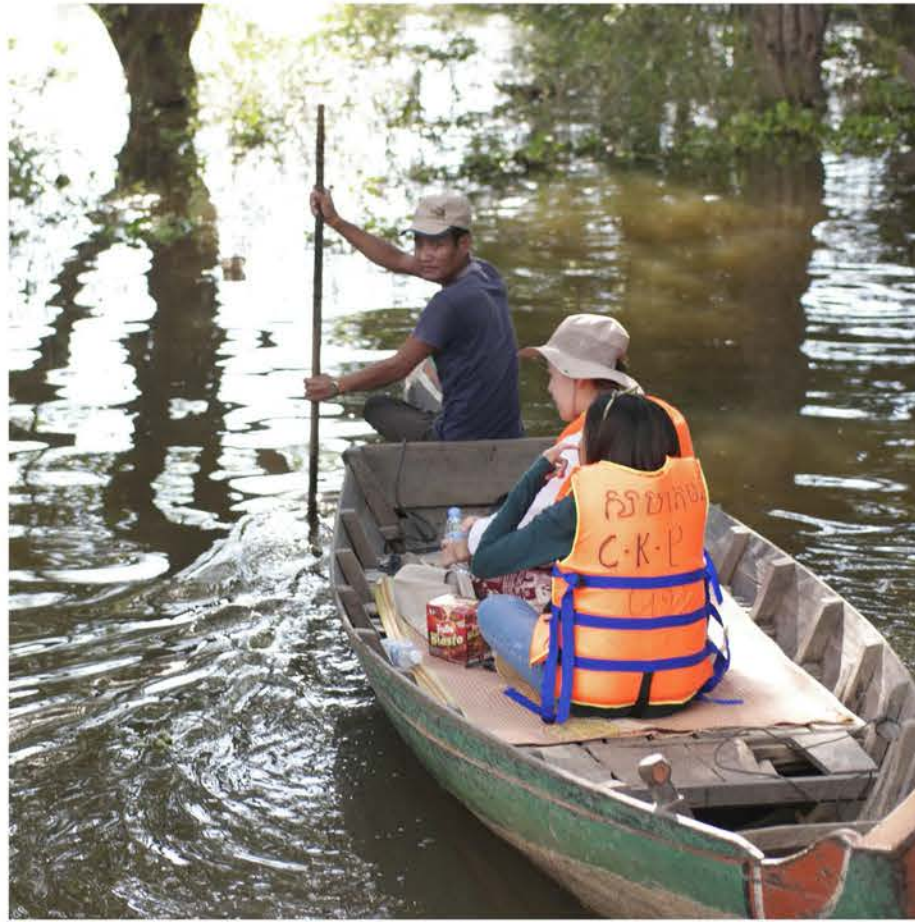
### 뚝레삽 호수

자그마한 보트를 타고 가다보면 좁은 물길이 넓어지면서 양 가로 알록달록 수상가옥들이 일렬로 줄을 서있다. 웬지 이 곳을 '구경'하러 온 내 자리가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너무나 예쁜 풍경에 그런 생각조차 잠시 잊게 되었다.



## 뚝레삽 호수

보트를 타고 더 들어가면 수상가옥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트 선착장이 하나 나온다. 그 곳에는 작은 보트 여러 대가 모여있고 청년 몇몇과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트에 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불편했다.  
우덤과 반냐는 그 불편함이 싫어 청년들의 배를 탔음에도 그 불편함은 여전했다.  
배를 탈 때부터 배에서 내리고나서도 우리 모두 비슷한 불편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 뚝레삽 호수

그 불편함이 괜히 이 곳에서만 느끼게 되는 불필요한 불편함인지, 자연스러운 불편함인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다.

보트에서도, 관광지 근처 팔찌와 기념품 뱃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총 6개국의 언어로 인삿말과 구매를 권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나는 불편했다.

그저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일 수도 있고, 언어가 좋아서 더 잘 익힐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불편해하는 게 맞는 걸까. 여행을 다니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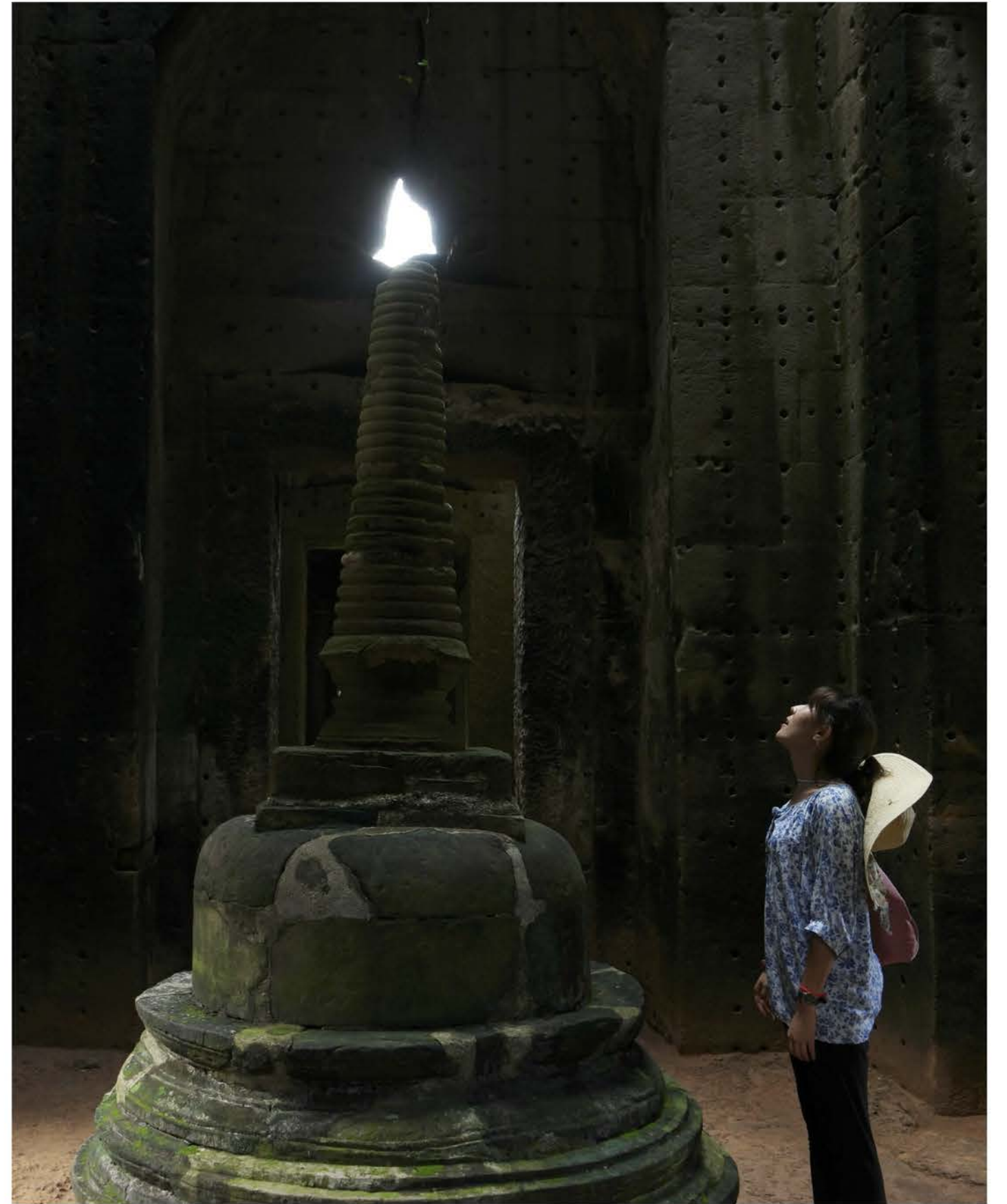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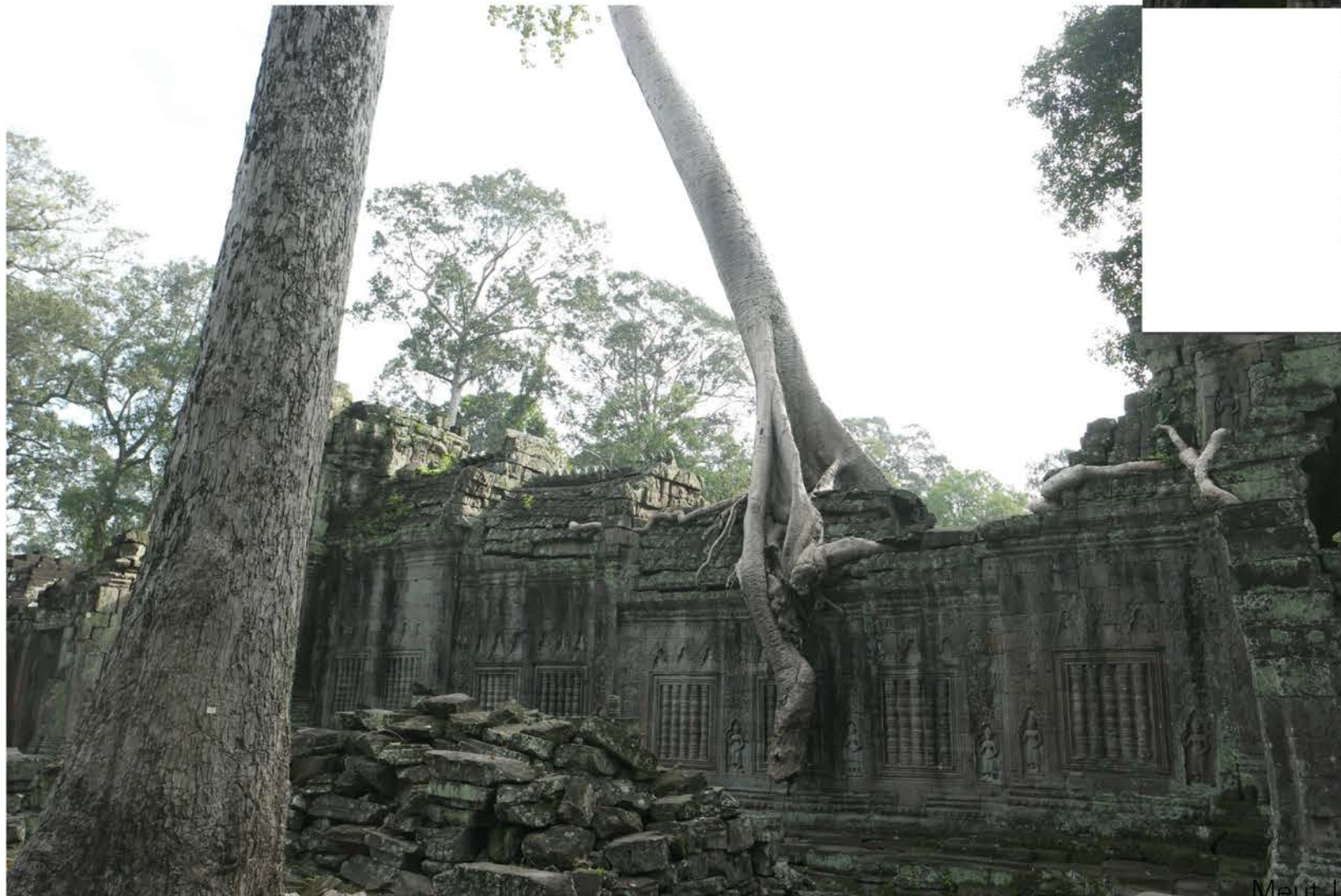
다시 우리가 타고 왔던 배로 갈아아타고 호수를 더 들어가면 바다가 나온다. 바다가 아닌 걸 알면서도 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곳, 툰레삽 호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물, 햇살, 구름, 바람뿐이다. 고요하고 평화롭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충분하다.











따 브롬 템플



따 브롬 템플을 지나오면 넓다란 호수가 나타난다.



Happy Birthday to Kimhong!



10월 1일은 이어이의 귀염둥이 막내손주 김홍의 생일이다.  
 이어이의 가족들도, 친하게 지내던 이웃도 모두 모인 자리.  
 9월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는 김홍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누군가의 생일파티에 초대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다.  
 어떤 생일 선물을 사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  
 자그마한 열쇠고리 인형을 선물로 줬다.  
 그 선물 하나로 김홍은 까르르, 우리는 김홍을 보며 까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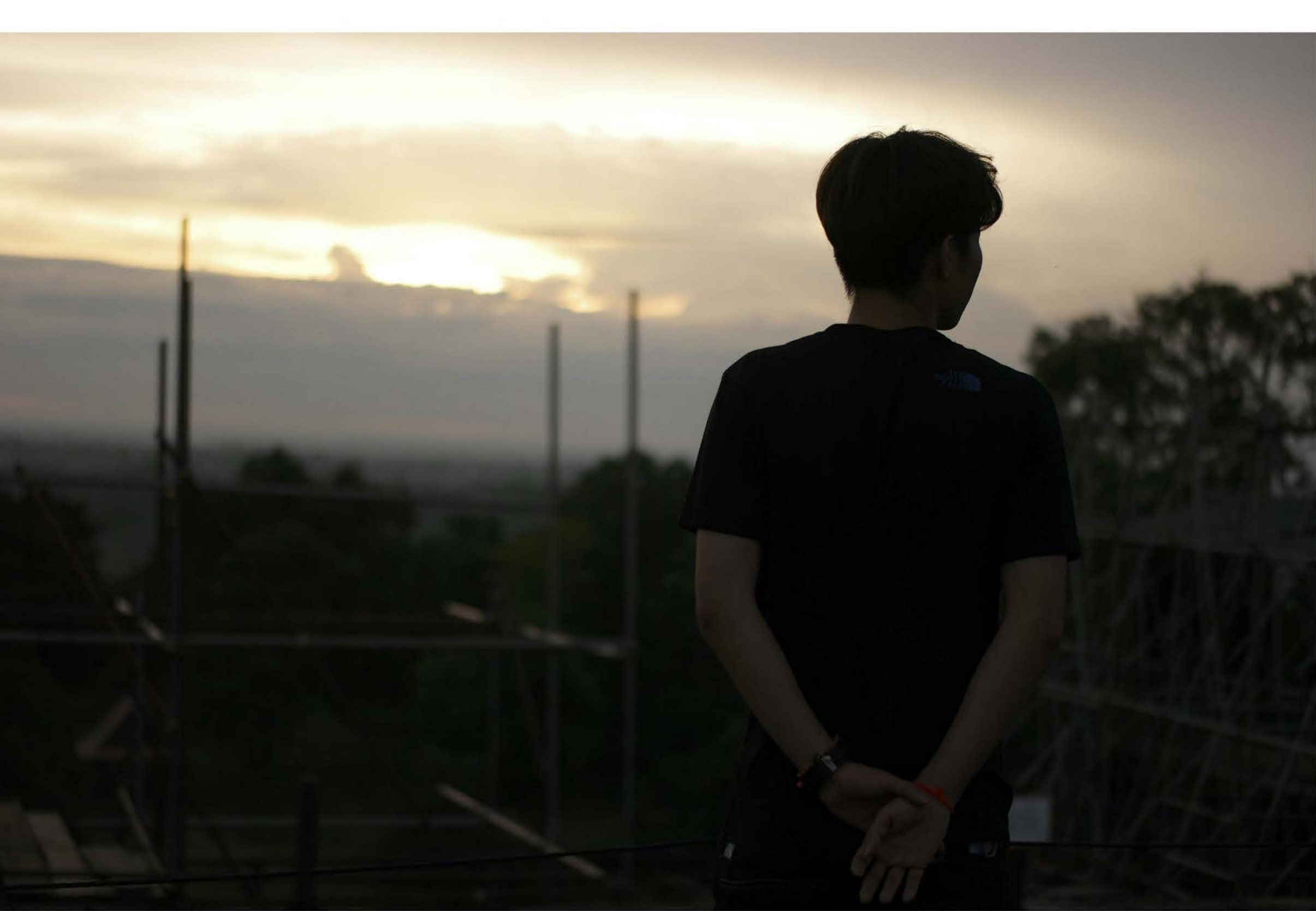
2015. 10. 23.



가난달의 51일째 밤.

지나온 날을 추억하며, 앞으로의 날을 소망하며.

- Udom -



# 종원(Udom)

아무생각 없이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가끔 가사가 들리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멍 때리고 있었던 평범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 그 음악과 함께 기억속에 오래 남겨진다.

10년 후...

내 기억 속에 이 곳에서의 생활은 어떤 음악과 함께 남아 있을까

# 한기일 (Ppannya)

씨엠립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월말에는 빈곤퇴치 캠페인, 쿠킹클래스, 보고서 작성, 중간평가 준비 등으로 바쁘고 보니 10월달이 다 끝났다. 중간평가 기간에 간사님들을 뵙고 조금은 나한테 확신이 더 생겼다. 이곳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내 스스로 해석해서 그 안의 의미를 찾아 내 확신으로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내가 하는 활동임에도 의미를 못 찾고 확신이 부족했다. 이번 중간평가 기간동안 많은 걸 느꼈다. 항상 무덤덤하려 하는 나인데도 이번 달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팀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 미안하다.

# 나래(Narae)

나는 세상을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은 모두 남이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혼자서 밥 먹는 일도, 혼자서 도서관을 가는 일도, 혼자서 쇼핑을 하고 이곳 저곳 구경하는 일도 나에겐 모두 편한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함께' 사는 일이다. 나와 함께 사는 세 명과 가장 많이 다투는 일도 모두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다. 나의 일은 나의 일 대로, 다른 사람 일은 다른 사람 일 대로 처리하고 각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달 동안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고, 종원이, 한길이, 다솔이의 일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내가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영화 보기, 책 읽기, 편지 쓰기도 다른 세 명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 다솔이는 나를 위해 불을 키고 잠들고, 종원은 무거운 분위기를 농담으로 깨트리고, 한길이는 부대찌개를 끓인다.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하기, 빼기와 같은 셈으로는 계산 할 수 없다는 걸 여기 사는 두 달 사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틀을 깨는 일이 아직까지 나에겐 가장 힘든 일이다. 스스로가 답답할 만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더디게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아차, 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 다솔(Zantrea)

#1

9월 달이 빨리 간 줄 알았다. 그런데 10월 달은 더 빨리 갔다. 프쭈번 데일로 일주일 넘게 여행을 해서일까, 너무 빨리 갔다. 그래서 겁이 나기 시작한다. 남은 3개월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 방에 열려져 있는 캐리어를 보면서, 우리 집 한 쪽벽에 날자에 맞춰 쌓여져 가는 캔들을 보면서, 나는 2월 2일에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유스들을 만나고 스텝들을 만나고 농부님들을 만나고 마을 아이들을 만난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땐 그냥 이게 내 일상같은데, 3개월 뒤에 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내가 떠날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 텐데, 내가 한국에서 보고싶을 때 꺼내보려 찍는 사진들이 내가 떠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까, 조심스러워진다. 망설여진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떠날 사람이 아니어도 할 행동인걸까. 나는 정말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했던 생각, 행동들, 쉽게 단정지어 버렸을 모습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망설이게 되었다. 아무 생각없는 행동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다.



# 다솔(Zantrea)

#2

나를 봤을 때 손을 흔들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항상 이름을 물어보고 외우려고 하지만 이내 잊어버린다.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싶은데.. 더 늦기전에 더 노력해야겠다.

마당이 있는 우리 집이 좋고 자욱한 나뭇잎 연기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좋고 문 앞으로 지나가는 유스들과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다. 나래언니, 종원오빠, 한길오빠 이 셋과 함께 사는 지금이 좋고 가끔 투닥거리고 가끔은 누군가 아파서 걱정하고 가끔은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서 걱정할 수 있는 지금이 좋다. 함께일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 덕분에 행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RaonAtti

다사다난했던  
알록달록했던  
10월을 보내며:)



Meut Laor

